

## 올 여름 더 뜨거워진다 전남 바다 고수온 비상

평년보다 수온 1도 상승 전망  
 적조·아열대성 해파리 덮쳐  
 최근 10년 1천여억원 피해  
 도, 장비 확보 등 예방 총력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전남지역 어민들이 긴장하기 시작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수산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으로 당장, 올해 여름도 고수온-적조-아열대성 해파리 출현 등 기후 변화의 부담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뜨거워지는 바다=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미국 해양대기청과 APCC(아태 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장기 기후예측 모델 분석 등을 토대로 올 여름 국내 표준 수온이 평년에 비해 1도 가량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고온-고염분을 특징으로 하는 대만류도 여름까지 강한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연안 표준 수온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때문에 전남도는 이달 중순이면 고수온 관심 단계(수온 28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7-10일 전후), 이달 하순이면 고수온 주의보(수온 28도 도달)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하고 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고수온이 계속되면 양식 어류의 경우 수온쇼크, 생리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산소 부족 등으로 대량 폐사가 발생할 수 있고 패류에서는 먹이활동과 성장도가 낮아지고 질병감염이 증가할 수 있다. 전남지역

에 설치된 육상수조식 양식장만 1294곳에 이르고 해상가두리(102만칸), 축제식 양식장도 320곳에 달한다. 여기에 전남에서만 최근 10년 간 2차례의 고수온 피해가 발생, 472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점을 감안하면 어민들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 전남도가 상황반을 편성하고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태세로 전환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전남도는 액화산소공급기(100대), 산소발생기(80대), 차광막(2000롤), 액화산소(1000kg) 등 장비를 확보하는 한편, 정부에 29억원 수준의 고수온 대응 사업비를 40억원으로 늘려 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1900~2000년) 평균 대기온도가 1.5도 상승했다. 세계 평균 기온 상승률(0.7도)을 넘어선 것으로, 연안 표준 수온도 남해의 경우 최근 30년간 1.04도, 서해는 0.97도 올랐다.

◇적조(赤潮)가 위협하는 바다=평온한 바다를 일순간에 핏빛으로 물들이며 어패류를 집단 폐사시키는 '바다의 무명자' 적조(赤潮)도 어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전남도는 매년 적조생물이 빨리 출현하고 있는데다, 고수온 현상 등을 감안하면 이달 하순께 적조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달 초순 확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7월 23일 여수 해역에 최초 출현, 고흥 해역에 걸쳐 8월 20일까지 지속된 바 있다.

전남도는 특히 지난 10년(2009-2018년)간 5차례 발생한 적조 피해 규모가 593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어업피해액

(4992억)의 12%에 이르는 점에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우선, 적조피해 예방을 위해 4개 시·군 양식어가에 가두리 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16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적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예방선박을 기존 6척에서 12척으로 늘리고 명예감시원 213명을 위촉해 감시태세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심상찮은 바다=수온 상승으로 아열대성 해파리떼가 출현하는 등 전남 바다 생태계에 불어오는 변화도 심상치않다. 전남도는 당장, '노무라입깃 해파리'의 경우 지난 달 동중국해에서 고밀도로 출현한 상태로, 이달 초순 남해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달 하순에는 득량만을 중심으로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최근 3년(2016-2018년)간 득량만 해역 일대에서 매년 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다.

어민들은 해파리로 인해 기껏 잡은 물고기의 품질과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고 입을 모은다. 어구 파손에 따른 손해도 감수해야 하고 어업 기간에도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넘길 수 없다는 것이 전남도 설명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감안, 해양수산국장을 본부장으로 해파리 피해방지 대책반을 꾸리고 분쇄기(9대), 절단망(135개), 동원어선(149척) 등 해파리 구제장비를 갖추는 한편, 8억3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활동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세계수영대회 선수촌 식당 공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앞둔 2일 광주 광산구 우산동 선수촌 식당이 언론에 공개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여야 정치권 세계수영대회 개막 앞두고 줄이은 광주 방문 성공 대회 힘 보태고 총선 민심 챙기기

민주, 선수촌서 최고위원회의  
 평화·바른미래, 준비상황 챙겨

여·야 정치권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앞두고 광주를 찾아 대회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탠다. 특히 여야 지도부가 잇따라 광주를 찾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본격적인 호남 민심쟁기기 행보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광주세계수영대회 선수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다. 이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들은 광주시와 수영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현황을 보고 받고,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회의가 끝난 뒤 선수촌과 남부대 주 경기장을 둘러본다.

앞서 전국 시·도당을 순회하며 내년 총선에 대비해 조직을 정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4일 광주를 찾아 지역 현안을 챙긴다. 지난달 13일부터 '전국 시·도당 투어'를 시작한 손 대표는 오는 1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당을 찾아

당원들과 간담회를 할 계획이다. 손 대표는 김동철·박주선 의원, 광주시당 당직자 등과 광주시정을 방문, 광주시·조직위와 간담회를 갖고 대회 준비 상황을 들을 예정이다. 또 최근 행정절차와 투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분개도에 오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민주평화당도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광주시·조직위와 대회 준비 상황을 챙기고 있다. 평화당은 앞서 지역의 주요 현안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련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광주가 지역구인 최경환, 장병완, 천정배 의원은 지난 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와 진상조사위 구성, 망연 의원 제명을 위한 국회 윤리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여야 지도부와 당직자 등은 오는 12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리는 수영대회 개막식에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 중요 흥행 요소로 손꼽히는 북한 선수단 참가와 관련해서도 정치권

이 힘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적인 남북 교류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가능케 한다"고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의의를 강조하고 "여·야 정치권과 정부, 민간기구까지 모두 한목소리로 북한 측에 선수단 참가를 요청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남과 북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마다 과감한 결단을 내리며 새로운 역사를 써 왔다"며 "남북미 정상회담의 판문점 회동에 이어 한반도 평화의 물결을 이어가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결단이 현실이 되기를 중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문 대통령 "남북 이어 북미도 사실상 적대관계 종식, 평화 시대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지난 일요일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은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장면을 지켜봤다"며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고,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정상의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펼쳐진 남북미 3자 정상 회담과 사실상의 북미 정상회담을 북미 간 적대관계 종식의 출발점이자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정치적 의미의 '중전선언'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남북 간에는 사실상 중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한 것으로 간주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를 감동시킨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한 파격적 제안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뤄졌다"며 "그 파격적 제안과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피부균형을 리셋해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LIMITED 설화수 윤조에센스**  
 피부노화, 시간이 아닌 피부 속 불균형의 문제  
 자음단™을 담은 윤조에센스가 흔들리는 피부균형을 리셋해  
 5가지 젊음의 지표\*를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젊음의 밸런스로 다시 힘 있게 깨어나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자생력, 생기, 영양, 투명, 탄력

Sulwhasoo  
 FRESH CARE  
 ACTIVATING SERUM EX  
 윤조에센스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키온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